

2/1(화) 레위기 11-13장 정결과 부정

11-15장은 정결과 부정에 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.

율법에서 말하는 정결과 부정의 기준, 의미는 <예배>와 관련됩니다.

정결한 사람은 성막에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,

부정한 사람은 성막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.

<부정>한 것들은 <죽음>과 관련되어 있습니다.

금지된 동물들은 사체를 먹거나 폐허에 사는 등

생존방식, 생활환경, 이동 방식이 정결하지 못한 것들입니다.

종 자체의 고유성이 확실치 않고 혼합 형태의 거주지를 갖습니다.

피부병과 곰팡이는 조금씩 <생명>이 좀 먹는 형태로 진행되며

작은 부위에서 넓은 범위로 오염이 확산됩니다.

성관계, 출산, 시체나 매장 등은 관련자를 부정하게 만듭니다.

그 자체가 <부정>하다기 보다 세상 영역에만 속하도록 분류한 것입니다.

즉, 성소 구역 내에서는 이와 관련된 것들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.

이방종교처럼 인신공양, 망자공경, 성적 제의들은 결코 용납되지 않습니다.

제사(예배)는 오직 <온전함, 완전함으로서의 거룩>을 기준으로

하나님이 정하신 방법, 정하신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.

부정과 정결에 관한 규례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

입고 먹고, 만나고 출입한 모든 것, 삶 전반을 점검하게 만듭니다.

우연하고 사소한 접촉 하나 하나까지도 반추하게 합니다.

고유성이 확실하고, 정결한 존재(삶)의 방식을 지향하게 합니다.

출산과 월경, 장례처럼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부정도 있지만,

사소함이 쌓여 <부정>이 지속되면 <죽음>에 이르는 것도 있습니다.

하나님에 대한 의도적인 불순종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.

정결을 유지하는 것은 생명을 더 풍요롭게 하지만,

부정은 혼돈과 죽음의 그림자를 드리웁니다.

나는 정결한 삶을 유지하고 있습니까?

하나님 앞에서 삶의 전반을(입고 먹고 만나고 출입한 모든 것) 점검하고 반추합니까?